

로버트 바노이(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13

창세기 4-5장

D. 창세기 4-5장 ...

2. 대홍수 이전의 기술 또는 홍수 이전의 기술

우리는 아직 창세기 4장과 5장의 대문자 D에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과 D 아래의 2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기술 또는 홍수 이전의 기술 홍수." 창세기 4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아주 초기 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 역사의 훨씬 후반이 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절의 첫 두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축화하고 농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과일이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따는 수렵 채집가가 아니라 실제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서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면 17절에서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더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의심할 바 없이 "도시"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일종의 영구적인 마을 유형의 정착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Finegan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그는 발견된 가장 초기의 마을

유형 정착지는 대략 기원전 500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홍수 이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범위에 관한 한 그것은 상대적으로 늦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을 보면 “그 동생 야발의 이름은 유발이었다. 그는 하프와 피리를 다루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현악기, 일종의 하프, 파이프는 일종의 관악기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르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로 변경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오르간은 킹제임스 영어에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어쨌든 관악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22절 에 보면,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낫쇠와 낫쇠의 모든 기술자의 스승이요 두발가인의 자매는 나아마더라. 청동과 철은 가인에게서 나온 몇 세대에 불과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 비록 이 족보에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매우 초기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기시대는 중동에서 기원전 1200년경에 시작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을 기억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인데, 이는 이보다 조금 늦은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철기 시대는 기원전 1200년경으로 설정됩니다. 구리/청동 시대는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최초의 마을 정착은 기원전

5000년경이었고 농업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인류학자와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에 이에 대한 유일한 대응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의 자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지라도 홍수 이전에 진보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홍수 이전에 진보된 문화가 있었다면 홍수 이후에 인간이 이전에 가졌던 기술의 일부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낱자 중 일부가 철기 시대의 시작과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한 전체 질문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참고문헌 9페이지 하단에 H. Stigers의 91페이지 주석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Stigers는 그 페이지에서 창세기 4장의 청동과 철에 대한 언급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0년대 후반에도 철의 초기 사용에 대해서는 특정 참고 자료를 참조하세요." 그는 "소아시아에서는 2400년부터 2200년까지의 아나톨리아 통치자의 무덤에서 철제 단검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철기 시대가 일반적으로 연대를 측정하는 것보다 1000년 빠른 것입니다. "초기에도, Hays *The Scepter of Egypt* Cambridge Mass. 1960은 기원전 4000년에서 3200년까지의 왕조 이전 이집트의 유적에 있는 철구슬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철구슬은 기원

전 4000년에서 3200년 사이입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지역의 수입된 구슬 기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업적이나 호기심으로 수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Hays는 왕조 이전보다 구슬의 날짜를 더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철이 널리 사용된 이 두 가지 사건은 중동에서 철기 시대가 시작된 일반적인 날짜인 기원전 1200년보다 적어도 1천년 또는 2천년 이전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나 다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와 같은 선언을 할 때 우리에게 주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홍수 이전에도 철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제기된 질문은 나중에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인데, 그것은 고고학적 증거의 단편적인 성격입니다.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즉,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고학적 발견은 너무 단편적이어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결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발견될 수도 있는 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성경적 진술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원리를 훨씬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었는데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고고학적 증거가 실제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가부장적 시대에 접어들면 이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3. 가인의 계열

알겠습니다. 3. D. 아래에는 "가인의 계열"이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에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서 몇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전체 부분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인류가 두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향은 당신이 부를 수 있는 것, 즉 가인의 길과 셋의 길입니다. 여기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에 가인의 계열이 언급되어 있고, 25절에서는 셋의 탄생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 다음 5장에서는 셋의 계열이 나옵니다.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문화의 기술 발전에 대한 이러한 언급이 있는 것은 Cain의 계열입니다. Seth 라인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스 계열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셋 계열에는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다른 것이 있다는 뜻, 즉 셋 계열의 구속적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라인의 영적 방향.

그러나 가인계열에서 일어난 일은 기술의 발전, 자긍심과 자급자족의 정신이 발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실라가 모든 구리와 철 직공을 두발가인의 스승으로 삼았으니"라는 구절의 끝 부분에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멕이 그의 아내 아다와 씰라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을 내가 죽였느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청년. 가인의 보복은 칠배나 라멕의 보복은 칠십칠배이리라'(창 4:22-23).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라멕의 진술은 가인과 마찬가지로 폭력과 무모함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분명히 두발가인이 청동과 철을 무기로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느꼈던 능력을 반영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최소한의 모욕이라도 주는 사람에게 복수심의 정신을 표현합니다. 그는 과학의 발전에 있어 기술을 신뢰하고 세계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또한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일부다처제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21 및 23과 관련하여 논의한 일부일처제 결혼의 이상과 상충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계열은 세상의 영이 매우 분명한 계열입니다.

기독교와 문화(Machen) 나는 문화와 기술의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J. Gresham Machen이 쓴 귀하의 참고문헌 10페이지 상단에 제가 나열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기독교와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의 깃발 69권에 있습니다. 그것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입니다.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과 같습니다. 그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문화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간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거부한다. 두 번째 입장은 문화적 성취와 과학적 지식의 위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문화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문화로부터의 철수입니다. 그가 논의하고 전개하는 세 번째 관점은 문화의 신성화이며 그가 지

지하는 관점이다. 문화와 기독교인의 관계는 기독교인이 인간의 책임인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는 과학 기술 발전에 깊이 관여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언젠가 읽고 싶어할 기독교와 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다고 방금 언급했습니다.

4. 셋의 족보 a. 그 목적과 성격 4. 내가 이미 창세기 5장에서 언급한 "셋의 족보"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a. "목적과 성격" 그리고 b. "그의 운명."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저자가 가인의 노선을 제시하고 난폭한 사람 라멕의 행동으로 그것을 절정에 달한 후 다시 돌아가서 셋의 노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원시 연대기 전반을 논의할 때 창세기 5장에서 셋의 족보를 논의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연대기를 구성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간격의 길이를 모릅니다. 글썄요, 오늘은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번엔 거기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피터강 작사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